기도

- 1. 영감의 별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

- 1. 나에게 헤롯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 2. 어렵고 틀린 길 같지만 영감의 별을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

별

에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야의 위치를 착각할 수 있었을 것이나, 오히려 그 별은 그 두 도시를 구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지시했을 것이다. 두 도시의 위치와 동방박사들의 행적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영감의 별을 따라가야 하며,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분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을 알려준다.



# 영감의 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영감의 별

마태복음 2장 6-12절 (찬85장, 135장)

본문은 서기관과 헤롯,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영감의 별과 오실 메시야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감의 별을 바르게 따라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영감의 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6-9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1절).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2-3절).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찾아 전했습니다(4-6절, 미5:2).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써 성경에 능통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찾았지만,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6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믿어야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헤롯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7-8절). 헤롯의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과 상관없길 바랐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관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영감의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을 믿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성령을 통해 별이 나타났습니다(9절).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감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과 진리로써 영감은 성령의 감동,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감의 별을 통해 가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영감의 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감의 별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영감의 별을 따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10-12절).

영감의 별을 따른 자들에게는 **영적 기쁨이 넘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별을 따라갔을 땐 기쁨과 평안이 임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10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롬8:6).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육신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감의 별을 따라가 영적인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별을 따른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11절). 황금은 믿음, 유향은 기도의 향기, 몰약은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은 각각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써,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감의 별을 따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별을 따른 자들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별을 따른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 셨습니다(12절).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들은 헤롯 왕의 보상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헤롯은 그리스도의 소식을 숨기기 위해 동방박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좋은 길이지만 옳지 않은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감의 별을 따라갈 때, 바른 길로 걸어가 생명과 유익이 넘쳐나고 영적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영감의 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별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도 영적인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우리는 영감의 별을 따라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